

“34년 간 시민에 ‘선명한 세상’ 선물한 것 보람”

충장으로 오래된 가게의 재발견

(8) '비바체 안경' 임병춘 대표

귀금속으로 품목 확대...국내·외 소외계층 안경 나눔 지속
“한산해진 충장으로 거리 안타까워...상인·지자체 노력해야”

※이 기사의 동영상은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장파출소 맞은편, '비바체 안경'. 가게는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세련됐지만, 80년대 개업 당시부터 써 왔던 거울 등 역사 깊은 물건도 곳곳에 남아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형형색색 안경을 써 보며 이 거울을 들여다봤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임병춘(62) 비바체안경 대표는 34년 동안 충장로에 머물며 광주 시민들에게 '선명한 세상'을 선물해 왔다. 그는 “지금까지 가게를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실함’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 주신 단골 손님들도 큰 힘이 되었다”고 돌아봤다.

보성 출신인 임 대표는 고등학교 때부터 광주에서 생활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방위사업체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 켠에는

늘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는 1986년 충장로 5가 간장공장(현 충장22센터) 근처에서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안경은 저와 평생 접점이 없었지만, 안과에서 오래 일했던 아내를 만나면서 안경점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땐 안경사 면허 제도도 없던 때였는데,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제도가 신설된 거예요. 밤낮없이 열심히 공부해 아내가 1회째, 제가 2회째에 면허를 땀던 기억이 납니다.”

임 대표는 당시 근처에 대인동 시외터미널, 아카데미 극장 등 시설이 많아 장사가 제법 잘 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리운 시절이다. 주말에도 쉬 없이 일했는데, 때로는 하루만에 한 달 집세를 낼 만큼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웃었다.

연일 매출 상승 곡선을 그린 비바체 안경은 90년대 상권의 중심이었던 화니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백화점이 부도나면서 큰 돈을 잃고 위기에 몰렸다. 임 대표는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 무너졌다. 더구나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콘택트렌즈와 라식·라섹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사업은 갈수록 힘들어졌다”고 돌아봤다.

“재정, 경험 등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안경점 자체가 큰 돈을 벌 수 없는 업종인데다 밀치고 장사하는 것도 일상화되자요. 절망적이었지만, 두 자식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2005년께 충장로 4가로 가게를 옮기고, 귀금속까지 사업을 확장해 지금까지 이어왔지요.”

힘든 중에도 봉사·나눔을 이어왔다. 각종 봉사단체 활동은 물론 안경점 특성을 살려 농촌 지역 무료안경 서비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 나눔을 해 왔다. 수년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수백 개의 안경을 보내기도 했다. 금남로공원에서 이뤄지는 무료 배식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주변 상인들과 ‘호형호제’하며 지내 온 인연도 소중하다는 임 대표는 최근 한산해진 충장로 거리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는 신도시 개발, 유명 메이커의 백화점 집중 등 외적인 환경 변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 못한 충장로 상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말을 흐렸다. 지자체 지원도 전통시장에 집중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세 세상을 보여준다는 보람과 사명감이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 큰 목표는 없다. 건강 유지하고, 미려하게나마 봉사도 꾸준히 하면서 충장로를 지키는 게 꿈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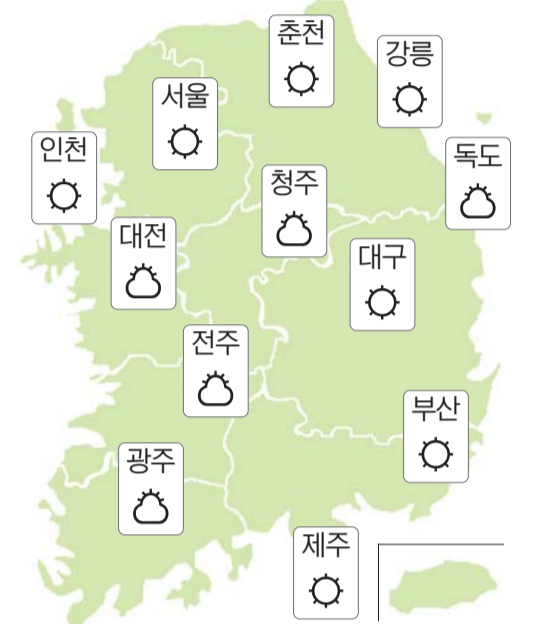
해돋이	07:38	달뜨기	13:48
해지기	17:26	달지기	01:58

최근길엔 쌀쌀

기업길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10	보성	구름많음	1/9
목포	구름많음	4/8	순천	구름많음	4/11
여수	구름많음	6/11	영광	구름많음	2/8
나주	구름많음	-1/10	진도	구름많음	5/10
완도	구름많음	5/11	전주	구름많음	3/8
구례	구름많음	2/10	군산	구름많음	3/8
강진	구름많음	1/11	남원	구름많음	-1/9
해남	구름많음	1/10	흑산도	구름많음	8/10
장성	구름많음	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2.0	1.5~2.5	1.5~2.5	2.0~3.0
	면바다(북)	1.5~2.5	2.0~3.0	2.0~3.0	2.0~3.0
	면바다(남)	1.5~2.5	2.0~3.0	2.0~3.0	2.0~3.0
남해서부	앞바다	0.5	1.0~2.0	1.0~2.0	2.0~3.0
	면바다(서)	1.0~2.0	2.0~3.0	2.0~3.0	2.0~3.0
	면바다(동)	1.0~2.0	1.5~2.5	1.5~2.5	2.0~3.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52	09:46	15:22	21:53
여수	10:50	05:03	23:37	17:16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높음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25(금)	26(토)	27(일)
0/7	-1/9	1/8
28(월)	29(화)	30(수)
2/11	0/8	-5/-1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장학금 2000만원 기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사진 가운데)가 최근 재단법인 광주 서구 장학재단(이사장 윤풍식)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근 재단에는 장학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동천유덕기업그룹협의회, 삼원에스티에스㈜, ㈜동부판넬, ㈜신광씨링, ㈜리도통상, 굿모닝가구백화점, 호남창호㈜, ㈜대륙에너지, ㈜대성파이프, ㈜동영산업, ㈜오케이철물, ㈜전남창호, 국민건설, 삼성지게차물류(주), 유명기업, 정우스틸산업(주), 코마스, ㈜진원상사, ㈜B&B 등이 총 3550만원을 기탁했다.

또 광주시육외광고협회 서구지부, 케이아이에코시스템(주)에서도 총 2400만원을 기탁했다. 서구장학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재단에 기탁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장학재단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서구장학재단은 지금까지 45억원의 기금을 조성, 총 48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4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남대, 연말연시 ‘방콕 댄스’ 영상 공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연말연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코로나 19 방역 특별대책을 학생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성탄절을 비롯한 각종 모임을 집에서 보내자는 취지를 담은 ‘방콕 댄스’ 영상 ‘호덕산타의 해피크리스마스’를 유튜브 ‘호남대TV’에 공개했다.

호남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댄스스포츠 동아리 라온(지도교수 김승희) 멤버들과 오리 캐릭터 ‘호덕이’가 등장, 통합뉴스센터 매직스튜디오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캐롤에 맞춰 흥겨운 댄스를 선보였다. 이



년 영상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들뜬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모범교통경제인’ 시상



(사)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회장 조정래)가 최근 ‘2020 모범교통경제인’ 12명을 선정해 광주시 장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상은 개인택시 운전사, 자동차 검사·정비 등 여객·화물 운수·자동차관리 사업 종사자 중에서 선정됐다.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제공>

수원 창현고 유유민양, 광주대 고교생 웹소설 공모 장원

국내 최초로 광주대가 진행하는 고교생 웹소설 공모전에서 유유민(수원 창현고·사진)양의 ‘편집자 권한 대행’이 장원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대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펼쳐졌으며, 청소년 예비 작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담은 판타지, 로맨스, 무협, SF 등 다양한 웹소설이 접수됐다. 장원을 차지한 ‘편집자 권한 대행’은 엑스트라로 빙의가 된 주인공이 오늘날 젊은 세대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심사위원들은 “웹소설의 경향과 스타일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으로 쓰인 작품으로 클리셰의 변형이라는 웹소설 기본 요건에 충실했다”며 “간결하고도 흡입력 있는 문장에 기초체 금금증을 유발

했다”고 밝혔다. 차상은 ‘종신 계약, 파기합니다’의 우아영 학생과 ‘패밀리 메이커’의 김나영 학생이 차지했다. 또한 차하는 각각 ‘빌어먹을 귀환’, ‘소울 게임’을 응모한 리비티나와 박승빈 학생이 받았다. 입상자가 광주대 문예창작과에 진학 시, 2년 동안 장학금(차상·차하는 1년)이 지급되며 입상작은 책 출간과 웹소설 연재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4일(음 11월 10일 辛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손발력 있는 대치가 절실한 때이다. 48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60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화가 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84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라. 96년생 목전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62

卯

39년생 일상에서 완전히 탈피 할 수 있는 파격이 아쉽다. 51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63년생 불완전하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75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은 당상이다. 87년생 상호간에 소통 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절실하다. 99년생 일관된 진행이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73

午

42년생 진정한 자선이란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54년생 얼마나 실용적이냐에 따라서 효과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66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78년생 상호 보완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 90년생 불변한 사항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행운의 숫자 : 21, 74

丑

37년생 변화를 추구한다면 발전되는 양상을 띤다. 49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중요하다. 61년생 아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73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8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니라. 97년생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형국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12, 92

辰

40년생 전반적인 구도의 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특이된다. 52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64년생 아예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판이란 국면으로 전환 되지는 않겠지만 여지는 있다. 88년생 불변하다면 시급히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00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3, 65

未

31년생 가벼운 징후가 현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43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 될 것이다. 55년생 급박한 국면이니 속전속결해야겠다. 67년생 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라. 79년생 문제점이 많으므로 재설계해야 할 처지라고 볼 수 있다. 91년생 물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7, 70

寅

38년생 높으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50년생 융통성만 있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 62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74년생 합리적인 추진이 불변을 해소해 주리라. 86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라. 98년생 앞날이 환히 열리는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03, 54

巳

41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해졌다. 53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량이 된다. 65년생 이익 앞에서 침착한 대립을 하게 된다. 77년생 기쁨은 짧고 아쉬움은 길 것이다. 89년생 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윤택유가 필요하다. 01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 행운의 숫자 : 32, 89

申

32년생 모서서 눈에 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44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먼저 행해야 할 것이다. 56년생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감흥을 볼 수 있다. 68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80년생 의례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92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해나가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7, 53

酉

33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45년생 길상의 징후가 조용하고 있다. 57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69년생 방향을 잘 잡는다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81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93년생 진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5, 64

戌

34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58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70년생 갈급해 왔던 것이 곧 해결 되겠다. 82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판세이다. 94년생 균형과 실용이 중할 때이니 인간관계의 처세에 신경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67

亥

35년생 안정성에 관한 평가 작업을 해둬야 할 시기이다. 47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59년생 망심한다면 상대의 시험에 빠져들 수 없다. 71년생 현상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83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나가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 95년생 계약 건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이다. 행운의 숫자 : 36, 98